

광주시, 대한민국 'AI 중심도시' 도약 날개 달았다

정부, 'AI 2단계' 예타 면제 의결
6천억원 규모...AX핵심기술 개발
5년동안 융복합기업 1천개 집적화
연구·실증...일상 전반 AI 대전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도 총력전

총사업비 6천억원 규모의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가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며 관련 사업 추진에 속

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3면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AI 2단계 사업(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

광주시는 AI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총 6천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5년 동안 AI 융복합기업 1천개 사 집적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이미 1단계 사업을 통해 AI 중심 도시의 기틀을 다져왔다. 지난 5년 간 4천300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광주에 'AI는 광주'라는 브랜드를 안

겨줬다.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900여개 기업이 참여해 2천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AI사관학교, 융합대학 등을 통해 매년 4천명 규모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AI 2단계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에 AI를 입히는 사업이다.

시민 체감형 연구 개발과 도시 생활 전반을 바꾸는 도시 생활형 과제를 통해 모든 시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AI 모델'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사업비 6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은 광주시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 AX 핵심기술 개발에도 투입된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 과제 중심으로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은 모두의 AI와 도시·생활혁신, 지역 전략산업 AX,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복지시설·공원·주차장 등 3천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천879종을 기업 실증 용도로 제공한다.

광주시는 내년에 시행되는 '국가 AI집적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AI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9천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천942억원, 고용유발 6천281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단계 사업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며 하반기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강기정 시장은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AI 1단계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AI 기반시설을 쌓고 인재를 키웠던 프로젝트였다"며 "2단계 사업을 통해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코로나19 재유행 선제 대응 18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직원들이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전국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검사를 한 결과 5주전 101명이던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22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방역물품을 확보해 긴급 배부하고 모니터링 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産 새청무쌀 '햇반' 출시

道·CJ제일제당·RPC 등 업무협약
年 1만t 쌀 공급...소비촉진 기대

전남산 새청무쌀을 활용한 '햇반' 제품이 출시돼 전남쌀 소비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와 CJ제일제당, 농협유통, 보성·강진

통합RPC는 18일 전남도청에서 새청무 쌀 활용 햇반 출시를 통해 안정적 원료공급 공급부터 소비 활성화까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지사, 박민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이찬호 농협유통 전무이사, 문병안 보성통합RPC 조합장과 진성국 강진통합RPC 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남에서 육성해 잘기와 운기가 좋고 밥맛이 우수한 '새청무 쌀'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즉석밥을 제공하도록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내용은 ▲즉석밥 기술력 활용 제품 설계·생산 ▲새청무 쌀의 안정적 공급 지원(연 1만t) ▲새청무 쌀 우수성 마케팅·홍보 등이다.

전남도는 새청무 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확보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해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2면에 계속 /김재정기자

광주·전남 56만가구 "내 집 없다"

무주택가구 광주 41.7%·전남 38.2%
높은 집값·1인 가구 증가 복합 요인
전세→월세 전환...월세 가격 오름세

광주·전남지역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전남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각각 26만1천733가구, 30만3천407가구 등 총 56만5천160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 비율은 광주 41.7%, 전남 38.2%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광주·전남 모두 무주택 가구의 경우 1·2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 1인 가구는 15만5천809가구, 2인 가구는 5만5천871가구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전남의 1인 가구는 17만800가구, 2인 가구는 7만5천151가구로 81.1% 비중이다.

이처럼 무주택 가구의 비중이 큰 이유는 높은 집값과 소득 격차, 1인 가구 증가, 부동산 투자 수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주택 가구 증가와 함께 전·월세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아파트 전세 시장 거래 가격은 최근 2년간 변동이 없는 반면, 월세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전세지수는 2023년 6월 99.9에서 올해 6월 99.9로 변동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월세 지수는 97.5에서 100.6으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100.4)을 웃도는 수치다.

이는 임대인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들은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금 마련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경우 도내 곳곳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이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 미분양이 3천280호를 웃돌며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의 무주택 비율 증가에도 신규 미분양이 속출하는 것은 자재·인건비 등 복합 원인으로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아파트 가격 할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민간임대 공급 물량이 많다"며 "과거엔 8년 전세, 현재는 10년 전세 주택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고 이런 원인들이 무주택 비율에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기자

Today	
'도시 흉수' 치수인프라구축을	5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KIA 안방 6연전서 반등 노린다	16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2025. 9. 15. - 9. 19. | 그랜드 하얏트 서울

W. gpaseoul.kr E. gpaseoul@wetheteam.net